

기획조사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 해외조사팀

요 약

아프리카 각국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아프리카 경제권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부채탕감 및 원조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진정 국면에 접어든 물가상승률, 세계 경기 호조도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프리카 교역량도 증가 추세로 2003년 이후 상품 수출입 모두 두 자리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3~2004년 2년간 교역액이 1990~2002년 13년간의 교역 총액을 이미 상회하였고, 2005년 상품수출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29% 및 16% 증가한 2,960억불, 2,480억불을 시현한 바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FDI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2005년도 기준 전년 대비 무려 55% 증가한 289억불 규모의 외자유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세계 평균 증가치(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개발도상국 경제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 수출지역 다변화 및 안정적인 천연자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 및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성장 유망한 7대 아프리카 국가들을 선정하여 시장특성 및 진출 유망분야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총 GDP의 27% 및 아프리카 총 교역액의 23%를 점유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2014년

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경제정책과 60-70억불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2010년 월드컵 관련 경기장 건설 및 항만, 철도, 도로, 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관광 프로젝트가 예정되고 있다. 남아공은 '혁신기업 육성정책(BEE)'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통신,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BEE기업과의 합작 또는 하청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유망하다.

알제리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평균 6%에 이르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는 등 교역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 석유 및 가스 생산 설비 증설과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플랜트 설비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분야 진출 시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전까지는 EPC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고유가 지속 및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경제성장이 가속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식품 및 생필품군에 대한 수입규제로, 과일주스, 두유식품, 미네랄 워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가공 기계류 및 시설 플랜트 진출이 유망하다.

이집트는 높은 성장잠재력과 중아지역 최대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으로 기간산업인 섬유분야 진출이 호기인데, 특히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기계 분야가 유망하다. 우리나라는 이집트 시장에서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산 섬유기계의 가격 대비 품질

우수성이 이집트 섬유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현지 시장에 알맞은 품목과 사양의 지속적 발굴, A/S 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동 분야 진출을 적극 시도해 볼만하다.

모로코는 주력 산업인 수산업 현대화 계획을 추진 예정으로 조선기술 및 조선인력 확보를 통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선박의 수출을 장려하고 100% 자체 조업능력과 어획량 증가를 달성하며 북아프리카의 선박수리 주요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전략 부재 및 조선능력 부족으로 전문 컨설팅, 선박 및 관련 장비와 폐선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대하다.

리비아에서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로 외국자본 유입 증가 및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회기반시설 및 주택 등의 유지보수와 신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건설경기 붐과 건설장비 수입권의 민영화로 건설 중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어 진출이 유망하다.

케냐의 경우 정치적 부패가 직면문제이나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제조업 및 기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플랜트 분야가 유망한데, 노화된 기계설비 교체 및 지력개발 프로젝트가 진출 가능하다.

목 차

I. 개관 / 1

II. 아프리카 주요국별 경제동향 / 9

III. 국별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 47

1. 남아공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프로젝트 / 47

2. 알제리 : 석유·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 53

3. 나이지리아 : 식품가공 플랜트 / 56

4. 이집트 : 섬유기계 / 59

5. 모로코 : 조선, 선박 및 선박 기자재 / 64

6. 리비아 : 건설 중장비 / 69

7. 케냐 : 기계 플랜트

I. 개관

1. 최근 경제동향

□ 아프리카,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부상

○ 아프리카 각국들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주목하면서 아프리카 경제권이 부상함.

- 과거 아프리카는 내전, 기아, 질병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점철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암흑의 대륙'으로 인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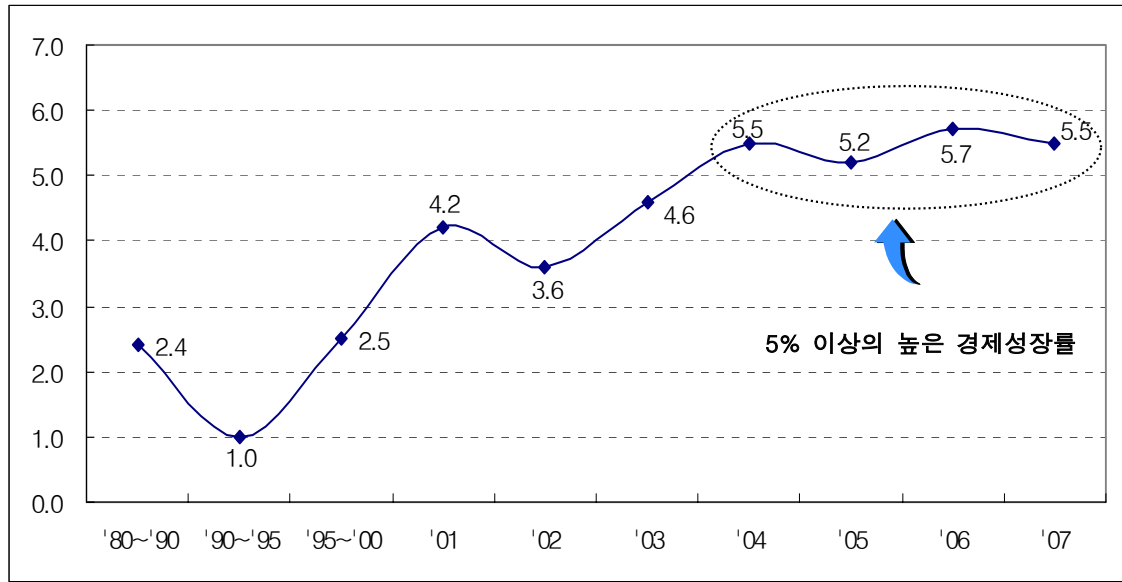
-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전반에 걸쳐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위기의 대륙 → 기회의 대륙)

□ 아프리카 경제, 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성장궤도 진입

○ 장기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UNCTAD Africa Development Section,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6

- 아프리카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은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 선진국의 부채탕감 및 원조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기 호조가 주 요인임.
- 특히, 아프리카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진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함.

※ 아프리카 물가상승률 : 49.8%(1994) → 28.4%(1996) → 13.6%(2000) → 9.9%(2002) → 8.5%(2005)

□ 2006년 아프리카 경제,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올해 아프리카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G-8의 부채탕감, 분쟁 감소에 따른 정치적 안정, 구조개혁 정착 등의 호조요인에 힘입어 6%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IMF 추정)

※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아시아 개도국(8.2%)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높은 성장률임.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4.9%)

- OECD도 최근 발표한 '아프리카 경제전망'을 통해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부채탕감 및 원조확대, 거시경제 안정 등을 근거로 올해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함.
 - 다만, 내전, 자연재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은 경제성장의 불안요인으로 평가함.
- 2006년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산유국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고유가 기조에 힘입어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이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산유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아프리카 평균을 크게 상회함.
 - ※ 산유국 : 6.9%, 비산유국 : 4.9%, 아프리카 평균 : 5.8%
(OECD 전망치 기준)
 - 비산유국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국가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농업생산량 회복, 설비투자 증대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 비산유국 중 경기호조 국가 : 남아공, 모잠비크, 잠비아,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등

[2006년 아프리카 국별 경제 기상도]

구 분	국 가
매우 맑음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 남아공
맑 음	잠비아, 말리, 에티오피아, 튀니지, 카보베르데, 우간다, 감비아, 가나, 보츠와나, 세네갈, 알제리, 리비아, 수단, 부르키나파소, DRC, 모리타니와, 마다가스카르
보 통	에리트레아, 가봉, 스와질란드,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니제르, 부룬디, 르완다, 지부티, 토고, 말라위, 카메룬, 베냉, 상투메 프린시페, 모리셔스, 모로코, 케냐, 콩고, 이집트, 나미비아
흐 름	짐바브웨, 세이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주 : 굵게 표시된 국가는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

자료 : African Economic Outlook 2006, OECD

2. 상품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가. 상품교역 동향

□ 2003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 지속

- 2005년 아프리카의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960억불을 기록했으며, 수입액도 2,480억불로 전년 대비 16% 증가함.

- 아프리카는 2003년 이후 상품 수출입 모두 두 자리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3~2004년 2년간 교역액이 1990~2002년 13년간의 교역 총액을 이미 상회하였음.

[아프리카 상품교역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0~ 2005년
수 출	-7.0	2.0	26.0	30.0	29.0	15.0
수 입	4.0	2.0	21.0	29.0	16.0	14.0

자료 : World Trade 2005, Prospect for 2006, WTO

- 2003년 이후 교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원자재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대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의 확대 때문임.

※ 2004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 수출액 중 원유 및 원자재 비중 : 59.0%

- 다만, 교역 구조가 원유 및 원자재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상품교역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취약점이 있음.

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 세계 FDI 유입의 블랙홀로 급부상

- 2005년 아프리카 FDI 유입액은 풍부한 지하자원 및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최고치를 시현함.
- 2005년도 아프리카의 FDI 유입액은 전년대비 무려 55% 증가한 289억불임. (전 세계 FDI 유입액의 3.22%)

- 이는 세계 평균 증가치(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개발도상국 경제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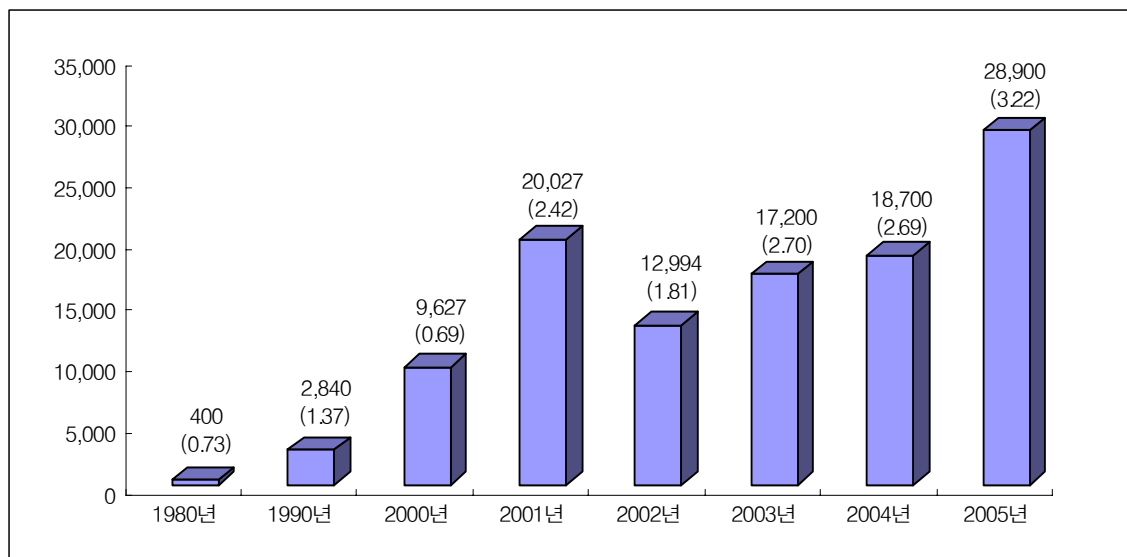
※ 지역별 증가율 : 아프리카(55%), 서아시아(51%), 동구/CIS(34%), 동남아(6%)

○ 지하자원 개발부문이 FDI 유입을 주도

- 국제원자재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유 및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단, 적도기니 등이 아프리카 FDI 유입을 주도하고 있음.

<아프리카 FDI 유입액 추이>

(단위 : 백만불)



주 : 괄호 안은 세계전체 FDI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Investment Brief No.1 2006 및 FDI Statistics, UNCTAD

3. 아프리카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 수출지역 다변화의 일환으로 新시장 개척 및 新수출 동력 확보

○ 아프리카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미개척 황금시장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세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는 원조대상국이 아닌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지속적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新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지역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아프리카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유망 잠재시장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기준 50%이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여건이 좋은 시장임.

- 아프리카 시장은 아직까지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진출여건이 좋은 편임.

-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 까다로운 통관 절차, 후진적인 상거래 관행, 비관세 장벽,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석유자원 확보의 다변화 및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 역할 수행

○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원유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약 80%) 점을 감안해 볼 때, 아프리카는 석유자원 확보의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

- 현재까지 확인된 아프리카의 원유매장량은 1,122억 배럴로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미개발 유전이 많아 중동지역에 비해 추가 유전개발 잠재력이 훨씬 높은 지역임.
- 아프리카 미개발 유전에 대한 개발붐이 본격화 될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중동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미국 등은 아프리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동지역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의존도 : 24.3%(2003) → 28.7%(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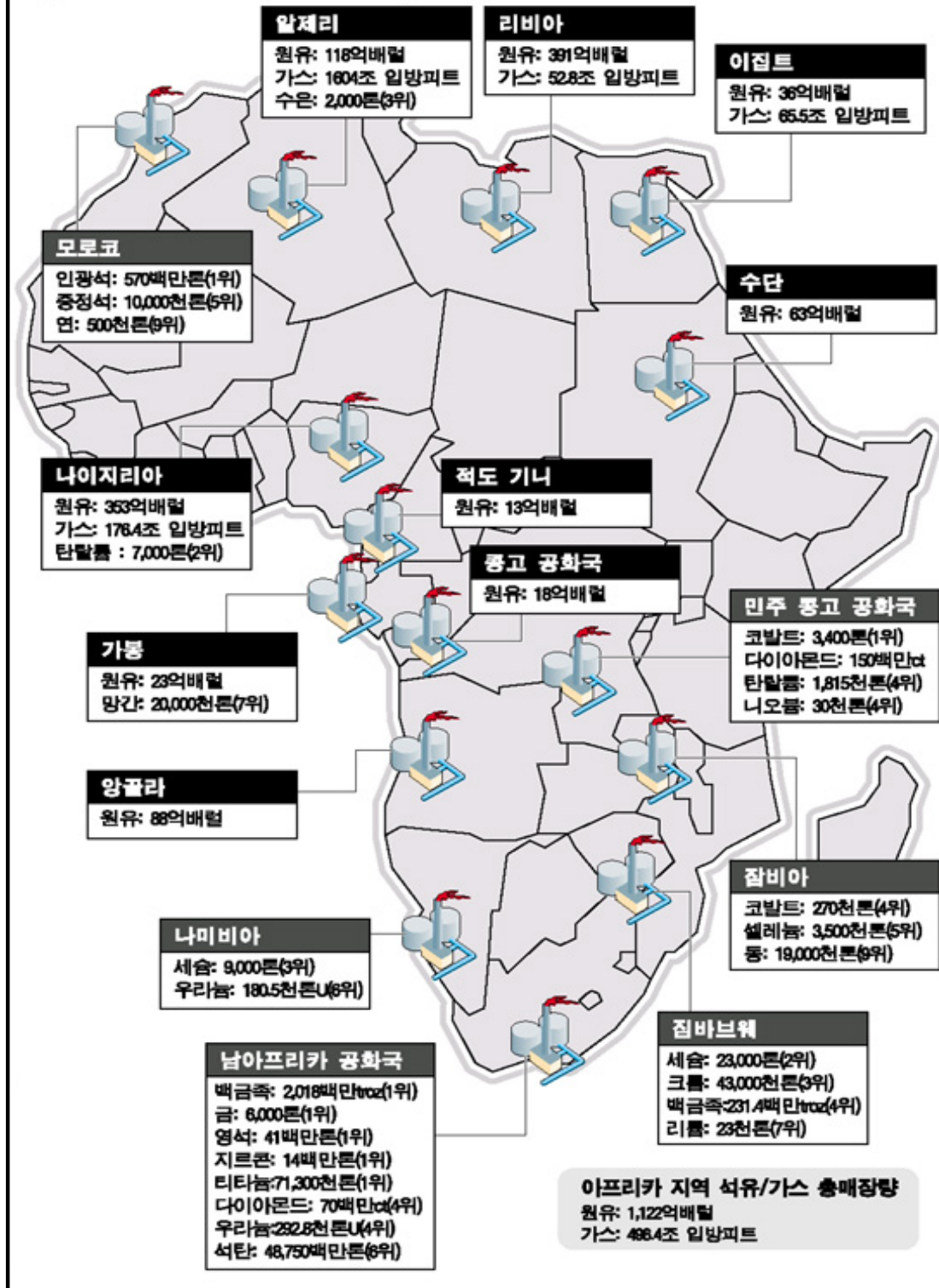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의 원유 매장량 및 생산현황]

주요 산유국	매장량(억배럴)	세계비중	일일생산량(천배럴)	세계비중
리비아	391	3.3%	1,607	2.0%
나이지리아	353	3.0%	2,508	3.2%
알제리	118	1.0%	1,933	2.1%
앙골라	88	0.7%	991	1.3%
수 단	63	0.5%	301	0.4%
이집트	36	0.3%	708	0.9%
아프리카 전체	1,122	9.4%	9,264	11.4%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 아프리카는 석유자원 이외에도 각종 광물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우리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
-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및 크롬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50%, 백금은 75% 이상을 차지함.
- 이 외 코발트, 금, 우라늄, 망간 등의 광물 매장량도 세계적 규모임.

아프리카 부존자원 현황



자료 : 서울경제신문

II. 아프리카 주요국별 경제동향

1. 남아공 : 아프리카 경제의 Power House

가. 경제현황

□ 아프리카 총 GDP의 27%를 점유하는 최대의 경제 대국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도국가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임.
- 2005년 기준,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은 2,391억불로서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GDP의 약 27%를 점유함.
 - ※ 국별 GDP 비중 : 남아공(26.9%), 알제리(10.7%), 이집트(9.7%), 나이지리아(9.0%), 모로코(6.3%), 튀니지(3.6%)
- 1인당 국민소득은 5,099불(2005년)로 충분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임.
- 상품 교역액은 1,132억불(2005년)로 아프리카 최대규모이며, 전체 아프리카 상품 교역액의 약 23%를 점유함.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내총생산(US\$억)	1,111	1,661	2,149	2,391
1인당 국민소득(US\$)	2,440	3,611	4,627	5,099
상품교역규모(US\$억)	589	775	1,011	1,132

주 :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 IMF WEO Database, WTO Trade Statics

□ 주요산업 : 광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 광산분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남아공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함.
 -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산업이 발전하였는데, 남아공 GDP의 6.3%, 수출액의 30%를 점유함.
 - ※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광물 : 금, 크롬, 크롬철, 망간, 백금류, 바나듐, 질석
- 철강 : 남아공 최대의 제조업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제조업 생산량의 21% 점유)으로 발전함.
- 석유화학 : 남아공 제2의 제조업
 -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지
 -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지로 변모하면서 남아공의 주요산업으로 발전함. (남아공 GDP의 7.1% 점유)

□ 아프리카 최대의 교역국

-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무역대국으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상품수출액은 534.5억불, 수입액은 598.3억불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3%로 매우 미미한 편임.
- 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Platinum), 철합금(Ferro-alloys), 석탄, 승용차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기, 휴대폰 등임.
- 주요 교역국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인데,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남아공의 10대 수입 대상국에 진입함.
- 2005년도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수출액은 2004년 수출액(9.6억불) 대비 37.5% 증가한 13.2억불임.
- 이는 한-남아공 교역개시 이후 최대규모로서, 아프리카 국가 중 플랜트를 제외한 순수 상품 수출액이 10억불 넘는 유일한 규모임.

나. 최근 거시경제 및 경제정책 동향

□ 사상 최대의 경제호황

- 남아공 경제는 지난 1999년 이후 장기 성장국면에 진입함.

- 최근 남아공 경제는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 저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호조 요인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4년도에 남아공 경제는 4.5% 성장하여 지난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2005년도에도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확대, 산업생산량 증가 등 호조요인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4.9%에 이르며 경기호조세가 지속됨.

□ 남아공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 추진

- 남아공 정부는 2014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경제정책을 발표함. (2006.2월)
 - 동 정책의 목표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통해 남아공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높은 실업률 해소에 있음. (26.5%)
- 新경제정책은 일종의 남아공형 뉴딜(New Deal)정책임.
 - 항만, 철도, 및 통신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에 걸쳐 620억불을 투자할 예정임.
 - 동 정책은 27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될 예정이며 Gauteng, KwaZulu-Natal, Limpopo州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게 될 것임.

□ 新산업정책 입안

- 남아공 정부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新산업정책을 발표함.

- 동 산업정책은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신흥 개도국(특히, 한국)의 산업정책을 본보기로 삼고 있음.
- 동 산업정책의 목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음.
- 남아공 산업을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식의 육성정책을 추진함.
 - 자원의존형 산업 : 원가절감 및 생산기술 향상
 - 자본집약형 산업 : 생산설비 효율화, R&D 지원, FDI 유치
 - 노동집약형 산업 : 고용유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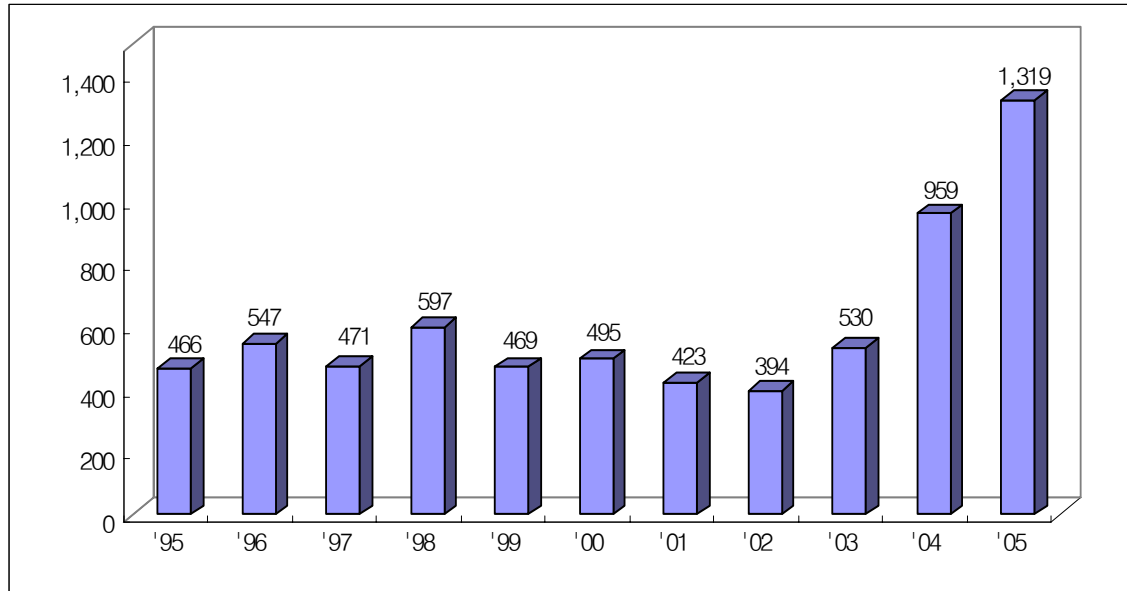
다. 한-남아공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2005년 對남아공 수출액 사상 최대규모

- 우리나라의 2005년 對남아공 수출액은 휴대폰 및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13.19억불을 달성함.
- 2004년(9.59억불)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한-남아공 교역 개시 이후 최대 규모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호주를 제치고 남아공의 10대 수입대상국에 진입함. (2004년도는 11위)

[對남아공 수출액 변화추이]

(단위 : 백만불)



자료 : KITA

□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품목별 수출동향

○ 휴대폰 및 자동차 수출 급증세

- 2005년 對남아공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8.8% 증가한 265백만불을 기록하여, 2004년 수출액(116백만불)을 크게 상회함.
- 이에 따라 휴대폰은 세단형승용차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함.
 - ※ 2004년까지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세단형승용차의 2005년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7.2% 증가한 189백만불을 기록함. (수출액 2위)
- 화물자동차 및 지프형 승용차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두 품목 모두 수출 증가율이 100% 이상임.

※ 화물자동차 : 98백만불(137.4% 증가), 지프형승용차 : 88백만불
(131.3% 증가)

○ 기타 수출 증가율 상위품목

- 남아공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건설 중장비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87.2% 증가한 31.2백만불을 기록하여 2004년도 수출액(16.7백만불)을 크게 초과함.
- 특이사항으로는 2004년 수출액이 30만불에 불과했던 공기조절기부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5년 수출액이 23백만불에 달하였음.

[對남아공 10대 수출품목]

(단위 : US\$천, %)

순위	품 목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1	휴대폰	39,974	115,885	265,133	128.8
2	세단형승용차	46,905	148,866	189,372	27.2
3	화물자동차	15,720	41,587	98,719	137.4
4	지프형승용차	6,869	38,308	88,612	131.3
5	건설중장비	16,240	16,687	31,241	87.2
6	윤활유	9,509	16,928	26,703	57.7
7	수상기	4,425	14,990	26,013	73.5
8	인쇄용지	17,632	23,446	25,136	7.2
9	공기조절기부품	158	301	23,167	7,599.8
10	냉장고(400L 이상)	8,253	13,359	20,379	52.6

자료 :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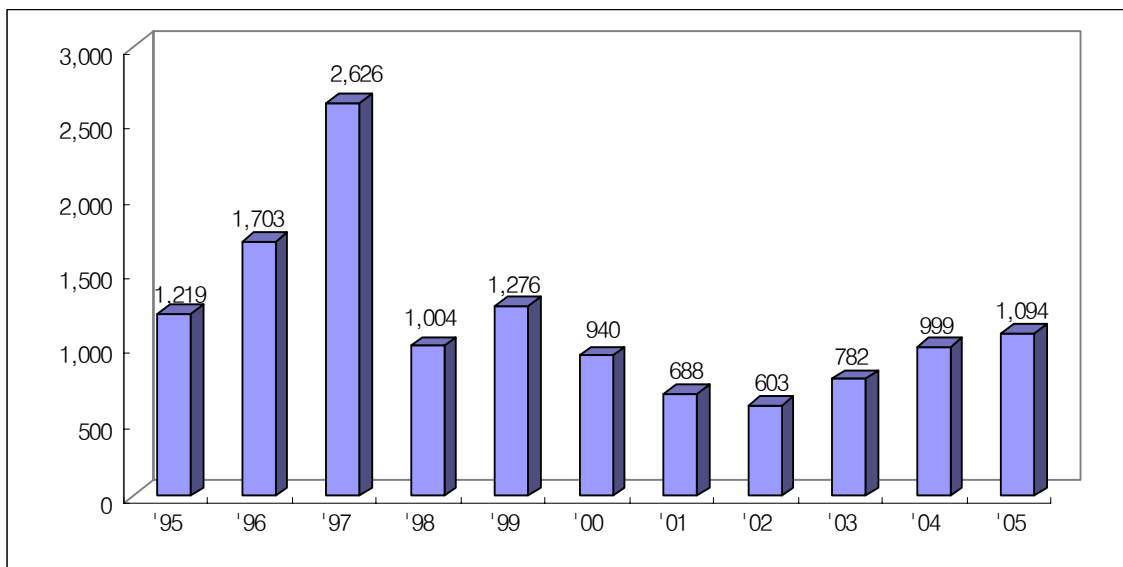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수입은 1999년 이후 6년 만에 10억불 대 진입

○ 2005년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한 10.9억불을 기록함.

- 이로서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수입액은 지난 1999년 이후 6년 만에 10억불 대에 진입함.

[對남아공 수입액 변화추이]

(단위 : US\$백만)



자료 : KITA

○ 품목별로는 아연도강판, 연강판, 목재류, 알루미늄판, 동스크랩 등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00%이상 급증함.

[對남아공 10대 수입품목]

(단위 : US\$천, %)

순위	품 목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1	기타합금철	130,369	256,159	270,469	5.6
2	백금	133,463	256,201	138,883	-45.8
3	알루미늄괴	118,576	103,244	115,576	11.9
4	동스크랩	24,154	24,074	78,699	226.9
5	철 광	37,107	38,780	68,145	75.7
6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53,385	9,093	40,389	344.2
7	용융아연도강판	21	2,662	38,311	1,339.2
8	스테인레스강열연강판	37,770	43,864	32,242	-26.5
9	원 당	21,515	25,651	31,161	21.5
10	기타금속광물	14,691	19,375	24,221	25.0

자료 : KITA

2. 알제리 : 고유가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

가. 경제현황

□ 에너지 분야 의존적 경제구조

- 알제리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이 전체 수출의 95%, 총 GDP(2005년 기준 848억불)의 41%, 국가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외 기타 서비스업 35%, 건축 및 건설 9%, 농업 8%, 제조업 7%로 GDP가 구성되어 있음.
- 에너지, 특히 원유분야의 지나친 의존으로 알제리 국내경기의 호·불황은 세계 석유 수요 및 가격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 구조적 문제점 극복이 과제

- 알제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석유 부문, 즉 제조업과 비정부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제조업 생산 활동의 75%가 국영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편임.

- 2000년 이후 추진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이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최근 정치·경제안정과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에너지, 수자원, 통신, 건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재추진 중에 있음.

나. 최근 경제동향

□ 지속적인 경제성장세

-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03~2005년 기간 중 평균 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 이는 원유·가스 생산 증가, 국제유가 강세, 신규유전 및 가스전 탐사 및 관련 산업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알제리 정부는 원유 및 가스부문의 판매수입을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하면서 사회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 추진

- 2005년부터 알제리정부는 WTO가입을 앞두고 환율통제, 무역장벽의 점진적인 제거, 가격보조 철폐 및 관세제도 개혁으로 무역체제의 현대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

□ 대외신인도의 개선

- 알제리의 외환보유액은 2002년 235억불, 2003년 331억불, 2004년 432억불, 2005년말 600억불로 지속 증가출세이며, 정치·경제안정에 힘입어 대외신인도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다. 한-알제리 교역 및 투자동향

□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교역량은 2005년 기준 5억불을 상회하여, 알제리는 우리의 아프리카 제 5대 교역 대상국이 되고 있음.
-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남아공(598억불)에 이어 2위 수준임. (221억불)
- 최근 석유 및 가스 생산 설비 증설과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득증가 및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對알제리 수출이 증대 중이며, 對韓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수출은 자동차(40%)와 핸드폰 등 통신 및 녹음기기(28%)에 집중되어 있어 동 품목에 대한 수출호부진에 따라 對알제리 수출실적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알제리 연도별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출	금액	186	225	355	340
	증가율	22.1	20.5	57.9	△4.2
수 입	금액	205	192	240	166
	증가율	78.5	△6.5	25.5	30.8
무역수지		△19	33	114	174

자료 : KITA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불, %)

순위	2005년 對알제리 수출			2005년 對알제리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210	48.2	원유	166	52.7
2	무선통신기기	46	△33.9	-	-	-
3	합성수지	18	23.5	-	-	-
4	건설광산기계	11	190.4	-	-	-
5	영상기기	11	△62.1	-	-	-

자료 : KITA

- 이외 산업용기계, 철강, 전기기계장치, 합성수지, 금속제품 등도 알제리 시장규모와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향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중국, 인도 등 다른 경쟁국의 추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투자는 2005년 누계 신고기준 5건, 342백만불로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에 투자가 이루어 짐.
- 최근 알제리 국영 에너지회사인 SONATRACH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국영기업 민영화에 우리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對알제리 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연도별 투자동향은 하기 표와 같음.

<연도별 투자추이>

(단위 : 건, 천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누 계
對알제리	건수	0	0	0	1	2	5
	금액	0	0	0	7,205	384	342,335
對한국	건수	1	1	0	0	1	5
	금액	232	534	0	0	50	896

주 : 투자신고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 신고기준 한국의 對알제리는 투자금액면에서는 3.4억불(아프리카 국가 중 1위)이나, 투자철수건(대우호텔 2.6억불 등)도 상당하여 잔존투자금액은 2,800만불임.

□ 알제리 진출 한국기업

- 현재 알제리에는 삼성물산, 대우자동차 등 5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음.

<알제리 진출 한국기업 현황>

(단위 : %, 천불)

업 종	투자자명	현지법인명	취급품목	투자비율	투자금액	투자잔액
광업	삼성물산	ALGERI ISSAOUANE	원유	25.5	12,396	12,396
	한화 에너지	ALGERI ISSAOUANE	원유	25.5	8,487	8,487
도소매업	대우자동차	DAEWOO AUTOMOBILES	자동차	100	7,298	7,298
	MCD(주)	SSANG YOUNG MOTOR ALGERIA	자동차	-	300	300
건설업	경남기업	KEANGNAM ALGERIE SPA	건축, 토목	51	84	8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가. 경제현황

□ 높은 원유부문 의존도

- 원유가스는 나이지리아 전체 수출의 95% 이상,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GDP 구성비는 농업이 35%, 원유가스가 33%, 제조업이 4%, 건설·유통·서비스업이 28%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제조업은 현재 수입금지가 되어있는 의식주 관련 43개 품목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는 등 극히 낙후되어 있음.

□ 적극적 경제정책 실시

- 나이지리아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 개발과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프라와 전력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석유광구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외국인자본의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자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을 실시, 2005.12.31일자로 기존의 89개 상업은행이 25개 대형은행으로 통합 정리됨으로서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상승 및 자금유동성이 호전되고 있음.

나. 최근 경제동향

□ 최근 경제 성장률 및 전망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6.3%, 1인당 국민소득은 543불, 물가 상승률은 11.6%로 나타남.
- 나이지리아 경제는 연간 250억불에 달하는 원유생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바, 최근의 고유가 추세에 의거하여 외환보유고가 340억불(2006년 5월말 기준)에 이르는 등 경제가 상승 기조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원유생산 지역인 Niger Delta지역에서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원유가스 생산시설을 파괴 및 외국인 근로자를 납치함으로써 2006년도 성장 목표 달성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나이지리아 거시경제 지표>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4.6	3.5	10.2	6.1	6.3
석유부문	5.2	5.7	23.9	3.3	12.0
비석유부문	4.3	7.9	4.5	7.5	8.0
원유생산량(mbd)	2.2	2.1	2.3	2.5	2.4
제조업가동율(%)	39.6	44.3	45.6	45.0	40.0
인플레이션율(%)	16.5	12.2	23.8	10.0	11.6
외환보유고 (US\$ 백만)	10,415.6	7,681.1	7,467.8	16,955.0	28,000.0
평균원유가(US\$/barrel)	24.5	5.0	29.2	38.5	62.4
평균 공정환율(N/\$1.00)	111.9	121.0	129.3	133.5	128.0
평균 시장환율(N/\$1.00)	133.0	137.8	141.4	140.8	140.0
1인당 GDP(US\$)	390.3	369.0	440.7	493.2	542.5
인구(백만)	118.8	122.4	126.2	129.9	133.5
인구증가율(%)	2.8	2.8	2.8	2.8	2.8
대외부채(US\$ 백만)	28,347.0	30,991.8	32,916.8	35,944.6	20,477.9
대내부채(US\$ 백만)	9,088.2	9,636.3	10,283.9	10,264.4	11,921.1

자료 : 나이지리아 통계청/중앙은행

다. 한-나이지리아 교역 및 투자동향

□ 최근 3년간 교역 동향

<한-나이지리아 교역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 역	707	△7.2	1,231	74.1	1,197	△2.8
수 출	599	△12.8	680	13.5	831	22.2
수 입	108	49.2	551	410.2	366	△33.6
무역수지	491	-	129	-	465	-

자료 : KITA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순위	MTI 코드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80,171	13.6	831,070	22.2
1	74	수송기계	172,644	79.6	260,850	51.1
2	21	석유화학제품	221,229	32.8	278,326	25.8
3	43	직물	119,062	26	70,662	40.6
4	61	철강제품	34,164	98.5	58,308	70.7
5	22	정밀화학제품	14,289	14.6	21,569	51.0
6	81	산업용전자제품	30,270	13.3	21,255	29.8
7	24	요업제품	1,067	26.2	20,371	1,809.4
8	44	섬유제품	17,312	34.5	17,343	0.2
9	82	가정용 전자제품	14,094	37.2	13,777	2.2
10	83	전자부품	11,444	20.1	13,192	15.3

자료 : KITA

□ 우리나라의 對나이지리아 투자진출 동향

- 우리기업의 對나이지리아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주요 대기업 지·상사(대우건설, 현대 중공업, LG전자, 삼성 전자 등)가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석유화학제품 분야(가발 제조업체 등)에 2개의 우리업체가 진출해 있음.
- 그 밖에 소수의 교민이 운영하는 자영업체로서 플라스틱 사출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 및 압출기를 이용한 쇼핑백 생산공장이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 최대 외환 수입원인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간 50억불 이상의 외국인 자본투자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투자환경은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05년도 말 對나이지리아 투자실적은 16건, 25,261천불(신고건수 기준)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주 원인은 원거리 이외 무역사기의 원산지, 빈곤, 치안불안 등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임.

<업종별 對나이지리아 투자현황>

업종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1	306	1	271
	1	72	0	0
	1	450	1	255
	1	200	0	0
	1	1,000	1	181
건설업	1	456	1	216
	1	391	0	0
	1	360	1	326
	1	46	0	0
도소매업	1	595	1	595
	1	900	1	900
	1	291	1	291
	1	12	1	12
	1	320	0	0
	1	60	1	8
통신업	1	19,802	1	19,802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 투자진출 우리기업 현황

- 현재 나이지리아 투자진출 우리기업은 약 26개사 내외로, 가발 및 플라스틱 제조 관련 업체가 13개사, 대형 건설업체 3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 2개사, 기타 6개사 등임.
- 지역별로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오일 생산 지역인 포트하코트, 와리, 보니 아일랜드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상업 및 경공업 중심지인 라고스 지역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들 우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근로자수는 약 8천명 내외로 현지 고용 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형 건설회사 및 2개의 가발업체를 제외하면 우리기업의 나이지리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한 수준임.

<나이지리아 진출 10대 기업>

연 번	회사명	진출 년도	종업원 현황 (본사파견/ 현지채용)	설립자본 금(천불)	연간매출 액(천불)	국내모기업
1	대우나이지리아 (대우건설)	1978	313/3,200	800	2,500,000	대우건설
2	대우 Global (대우무역)	1978	1/7	20	50,000	대우 인터내셔널
3	LG 전자	2004	7/100	160	150,000	LG 전자
4	삼성전자	2005	1/8	75	100,000	삼성전자
5	현대 나이지리아	1999	3/4	150	100,000	현대종합상사
6	현대중공업 나이지리아	2000	16/3,000	1,500	2,000,000	현대중공업
7	린다	1992	2/500	300	3,000	세양물산
8	비너스-니나	2000	3/160	50	2,300	강원산업
9	조비칸 나이지리아(태동)	1980	10/90	660	8,000	태동
10	태우	1996	6/150	3,000	7,500	-

자료 : KOTRA 라고스무역관

4. 이집트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 주도

가. 경제현황

□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아권 중심시장

- 이집트는 중동최대의 인구 보유국(7,200만명)으로, 경제력 상위 10%는 연소득 1만불 이상의 견고한 구매력을 행사하고 있음.
- 또한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의 제조업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도 이집트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대사관의 상주 외교관수 800명, 아랍연맹 사무국 위치

□ 연 평균 25%이상의 수입증가로 중아권 내 주력시장으로 부상

- 2004년 약 25%, 2005년 54%의 괄목할만한 수입 확대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 내 주요 수입시장으로 자리매김.
- 이집트 정부의 산업화와 수출입국화에 따른 산업생산용 설비, 원부자재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어서 지속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됨.

<이집트 대외교역 현황 >

(단위 : U\$백만)

구 분	2003	2004	2005
총 수 출	6,161	7,676	10,652
총 수 입	10,878	12,832	19,815
무 역 수 지	-4,717	-5,156	-9,163

자료 : 이집트 상무성

□ 다양한 외환수입원을 바탕으로 성장지속

- 미국의 대외원조 : 연간 약 22억불 규모
- 관광수입 : 연간 65-70억불(연간 관광객수 800만명)로 증가세
- 해외근로자 송금액 : 연간 약 30억불(중동파견 근로자 200만 명)
- 수에즈운하 통행료 : 2005년 1년 동안 통행료 수입 34.6억불
- 원유 및 가스 수출액 : 연간 약 43.5억불로 최근 개발확대 중임.

□ 다른 지역 대비 양호한 진출 여건

- 이집트에서는 일본이 소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에 대한 견제가 팽배함.

- 우리나라는 이집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상품의 진출여건이 호의적임.

□ 가격지향적인 수입 시장구조

- 통상 물품 구매 시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 시 고려되어 인도,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 수입상의 의도적인 상품가치 인하와 가격할인 요구가 빈발하여 초기 시장 진출 시는 출혈수출도 발생함.

□ 안정적인 대미 환율 정착

- 2005년도 이후 미화 1달러 대비 5.74 이집트 파운드로 환율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환율안정으로 경제기조 성장세 지속 추진과 수입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됨.

나. 최근 경제동향

□ 2005년 경제성장률 4.5%

- 2004/2005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4.5%로서 2000년대 초반의 2~3%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연 70~80만에 달하는 유향 노동인구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임.

- 2004년 7월 이후 이집트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6.7%정도 평가절상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은 악화되었으나, 경제기조의 안정화에 기여함.

□ 공기업 민영화

- 2004년 7월 출범한 現 Nazif 내각은 공기업 민영화를 최대 경제현안으로 간주, 국영 Telecom Egypt, Egypt Air, Alexandria Bank 등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량 기업들을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활발한 민영화 계획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국제 투자회사들의 우량 공기업의 지분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또한 석유화학, 원유정제, 면방직 분야의 공기업 민영화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2005년 5월말까지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상회하고 있음.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GDP(U\$억)	800	676	736	755
1인당 GDP(U\$)	1,372	1,169	1,044	1,049
실질경제성장률(%)	3.1	3.7	4.5	5.1
인플레이션(%)	3.0	5.5	3.5	5.6
실업률(%)	15-17.5	15-17.5	15-20	11.2
경상수지(U\$억)	19.2	29.1	22.8	33.0
외환보유고(U\$억)	148	145	155	185
총외채(U\$억)	291	299	300	355
연말환율(U\$대비)	5.13	6.15	6.33	5.6

자료 : 이집트 통계청

다. 한-이집트 교역 및 투자동향

□ 수출 동향

- 2006년도 對이집트 수출액은 5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약 3.38억불임.
- 그러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이 개재되면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수출액 추이>

(단위 : 억불)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			對이집트 수출총액		
2004년	2005년	2006 (1-5)	2004년	2005년	2006(1-5)
2,538	2,844	1,272.65	5.38	7.06	3.38

자료원 : KITA

□ 수입 동향

- 2006년도 5월말 기준, 對이집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한 2.93억불을 기록함.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수입액 추이>

(단위 : 억불)

우리나라의 총 수입액			對이집트 수입총액		
2004년	2005년	2006(1-5)	2004년	2005년	2006(1-5)
2,244	2,612	1,223.30	3.36	2.01	2.93

자료 : KITA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006년도 5월말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타이어, 폴리에스터 섬유직물 및 섬유사, 냉장설비 등이 對이집트 상위 10개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조립생산용 엔진 및 부분품의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형 자동차 (1,000-1,500cc)용 엔진 수입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8.3배의 높은 신장세를 이룸.
 - 이집트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과거 3~4년전 섬유사 위주의 對이집트 수출에서 점차 고부가 직물로 수출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2006년 5월말 기준 수출실적이 7백만불로 지난 동기 대비 약 2.7배가 증가함.
 - 이 밖에 휴대폰, 냉장설비, 타이어 등도 수출 호조를 보이며, 2006년 5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5.6%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임.
- 2005년도 -40%를 기록하였던 對이집트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2006년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의 수입 신장세를 시현함.
- 이는 동, 원피, 면 등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동 및 동제품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6.7배 증가함.

□ 우리기업의 對이집트 투자진출 동향

- 2006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투자건수는 신고기준으로 16건, 188백만불이며 실제투자 건수는 15건, 138백만불임.

<對이집트 투자진출 현황>

(단위 : U\$천)

현 지 법 인 명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합 계	16	187,698	15	138,105
DAEWOO MOTOR EGYPT CO.,LTD.	1	82,810	1	48,673
PICO PETROLEUM SERVICES & INVESTMENT CO.,	1	62,900	1	52,575
DAEWOO MOTOR EGYPT CO.,LTD.	1	16,800	1	16,059
NOVA PARK CAIRO S.A.E	1	9,263	1	9,263
LG ELETRONICS EGYPT CAIRO S.A.E	1	3,500	1	3,500
LG ELECTRONICS EGYPT S.A.E	1	3,186	1	3,146
DIB EGYPT LIMITED LIABILITY CO.	1	2,750	1	1,412
AL-SALAM HOSPITAL CO. S.A.E.	1	1,500	1	1,500
SAMSUNG EGYPT ELECTRONICS CO	1	1,200	1	300
EGYPTIAN-KORE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1	1,183	1	295
TEXCHEM EGYPT	1	1,000	1	650
MODERN ELECTRONICS MFG CO.	1	552	0	0
DONGSAN CONSTRUCTION & ENGINEERING(EGYPT)S.A.E.	1	512	1	262
EIMC UNITED PHARMACEUTICAL	1	200	1	197
HANWHA-DELTA POLYFOAM CO.	1	195	1	195
KYE HYUN-CAIRO CORPORTION	1	147	1	7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5. 모로코 : 건설경기 호조로 경제성장 지속

가. 최근 경제동향

□ 모로코 경제동향 및 주요산업

○ 모로코 주요 경제지표는 하기와 같음.

- 인구 : 3천만명
- 경제성장률 : 3.5%(2004년기준)
- 산업별 비중 : 농업 21.2%, 공업 35.8%, 서비스 43%
- 1인당 GDP(2005년) : 1,750불
- 실업률 : 11.1% (2005.6월 기준)
- 수출입 : 수출 100.3억불, 수입 193.1불
- 외환보유고(2005년) : 151억불

○ 주요산업

- 농업 : 인구의 50% 이상이 종사
- 어업 : 인구의 1.5% 종사 (45만명)
- 광업 : 인광석 매장량이 세계 매장량의 75% 차지
- 관광 :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 유치, 관광수입 46억불
- 섬유 : 1,800개의 섬유업체, 종사자 20만명
- 건설 : 매년 10~15% 성장, 경제발전의 원동력

☐ 최근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단위: 억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입	141.5	188.9	193.1
수 출	87.3	105.1	100.3

나. 한-모로코 교역동향

☐ 對모로코 수출동향

<연도별 對모로코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출	128.3	162.3	207.9
수 입	34.8	41.0	55.5

<對모로코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품 목	2005년	2004년	2003년
자동차	58.7	35.0	19.0
무선통신기기	43.8	36.0	37.9
석유제품	17.7	0	0
영상기기	15.7	23.8	13.3
냉장고	8.7	9.5	6.6
합성수지	8.4	2.8	1.2
가정용품	7.6	6.5	3.0
고무제품	5.3	4.0	3.2
인조섬유	4.8	3.2	1.7
직물	4.5	8.8	9.8

<對모로코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품 목	2005년	2004년	2003년
비금속광물	22.7	19.6	10.7
반도체	13.6	8.5	9.2
해조류	4.5	2.7	2.1
의류	4.0	2.4	1.4
어육 및 어란	3.1	2.0	7.8

6. 리비아 :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로 경제발전 기반 구축

가. 경제현황

□ 석유부문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

- 리비아는 석유 부문이 GDP의 약 32%, 외환수입의 9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
- 식품가공, 의류, 철강, 시멘트, 기타 각 산업별로 생산설비를 갖추고는 있으나, 최근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특히 생필품은 수입에 절대 의존하고 있음.
- 국내 원자재를 바탕으로 비교적 발달한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철강,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기타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내생산 제품도 일부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하고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단순 조립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주요 산업 분야별 GDP 비중>

구 분	농수산업	오일,가스	광 물	제조업	건 설	서비스
비중(%)	8.4	32.6	1.8	4.2	2.0	44.5

자료 : EIU 2006

나. 최근 경제동향

□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2006년 5월 미국-리비아간 국교완전 정상화 조치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서방국가들의 투자 증가 및 민간기업 활성화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안정적 경제성장 시현 전망
 - 2005년 4.6%, 2006년 4.0% 성장 전망
- 2006년 1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2006년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LD228억(U\$168억)으로 확정
 - 개발예산(LD148억, +32%), 행정예산(LD61억, +17.5%), 국방예산(LD8억, -10.7%), 식료품 보조(LD8억, 전년과 동일), 의료보조(LD1.6억, +4.0%)
- 정부 재정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원유 생산량은 OECD 쿼터를 약간 초과하는 일일 1,568천 배럴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까지 일일 3백만 배럴 증산이 추진 중임.
- 실업률은 리비아 정부의 통계 미발표로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나, 15~30%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 기업들에 리비아 자국민 의무고용 강화 전망

○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외환 보유하고 및 최근 고유가를 감안할 때, 급격한 환율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전력,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한 전 공기업 민영화 추진 중임.

- 리비아 정부는 2004~2008년 기간 중 360개 민영화 대상 기업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는 70개 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됨.

<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질 GDP 성장 (%)	-0.2	4.6	4.9	4.3
소비자 물가상승 (연평균,%)	-9.8	2.8	2.9	3.2
상품수출 (FOB, 십억불)	11.6	14.5	20.6	20.1
상품수입(FOB, 십억불)	7.4	6.3	7.2	8.6
경상수지(십억불)	3.1	6.8	11.8	9.6
대외채무(연말, 십억불)	4.4	4.2	4.1	4.1
원유생산 (일일, 백만 배럴)	1.31	143	1.55	1.56
환율 (US\$1.00=LD)	1.27	1.29	1.29	1.27

자료 : EIU 2006

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 유전개발과 호텔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 집중

- 유전개발 분야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2005 1월과 10월에 실시한 유전광구 입찰에서 미국, 영국, 이태리,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오일회사들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임.
- 호텔분야는 유전개발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서, 2002년 6월 몰타의 Corinthia Group과 리비아 해외투자청(LAFICO)이 합작하여 Corinthia Hotel을 건설, 운영 중에 있음.
 - 호텔이 완공되자마자 UN 및 미국 경제재제가 해제되면서 외국 기업인들의 방문 증가로 완공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음.
- 외국 방문객 대비 호텔수가 턱없이 모자라 영국, 파키스탄, 이태리게 기업들이 호텔 투자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을 정도임.
 - 한국 기업으로는 D사가 트리폴리 시내에 5성급 호텔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 당국과 마지막 협의 중에 있음.

라. 교역 동향

□ 수출 현황

- 리비아의 주요 수출국은 이태리(63억불), 독일(29억불), 스페인(21억불) 순으로 對이태리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리비아의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불)

국가명	수출실적(총 수출 대비 비중)		
	2002년	2003년	2004년
이태리	3,212(41.0)	4,362(39.6)	6,250(39.3)
독 일	1,043(13.3)	1,616(14.7)	2,912(18.3)
스페인	1,337(17.1)	1,620(14.7)	2,124(13.4)
터 키	455(5.8)	851(7.7)	1,318(8.3)
튀니지아	352(4.5)	342(3.1)	425(2.7)
포르투갈	55(0.7)	371(3.4)	384(2.4)
인 도	202(2.6)	328(3.0)	371(2.3)
프랑스	289(3.7)	283(2.6)	332(2.1)
그리스	186(2.4)	243(2.2)	331(2.1)
중 국	-	90(0.8)	273(1.7)
영 국	217(2.8)	266(2.4)	267(1.7)
기 타	480(6.1)	726(6.6)	927(5.8)
합 계	7,828(100)	11,008(100)	15,914(100)

자료 : 리비아 대외교역 통계 / 2005년 발표 자료

- 또한 리비아의 對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및 가스(96.5%), 화학제품(2.1%) 등임.

□ 수입현황

- 리비아의 주요 수입국은 이태리(11.5억불), EU(7.9억불), 독일(7.6억불), 일본(5.2억불) 순이며, 한국은 4.7억불로 5위임.

<리비아의 주요 수입국>

(단위 : 백만불)

국가명	수출실적(총수출대비 비중)		
	2002년	2003년	2004년
이태리	1,046(24.3)	764(18.4)	1,154(18.3)
E.U.	-	688(16.5)	787(12.5)
독 일	481(11.2)	371(8.9)	759(12.0)
일 본	278(6.5)	362(8.7)	524(8.3)
한 국	221(5.1)	100(2.4)	470(7.5)
영 국	302(7.0)	223(5.4)	260(4.1)
프랑스	189(4.4)	206(4.9)	255(4.0)
중 국	-	102(2.5)	207(3.3)
인 도	-	12(0.3)	162(2.6)
미 국	-	82(1.9)	156(2.5)
기 타	1,312(30.5)	1,453(30.4)	1,567(24.8)
합 계	4,296(100)	4,161(100)	6,301(100)

자료 : 리비아 대외교역 통계 / 2005년 발표 최신자료

마. 한-리비아 교역 및 투자동향

□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對리비아 수출액은 2004년의 경우 전년 대비 229% 증가한 4.5억불, 2005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3.6억불임.
- 리비아는 중동 21개국 중 10위 규모의 수출시장임.
- 승용차, 화물선, 화물자동차, 자동차 부품, 에어컨 등이 주요 수출품목임.
- 우리나라의 對리비아 수입액은 2005년 기준 전년 대비 72.9% 감소한 2.8백만불을 기록하여 무역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
- 참치, 어육 등이 주요 수입품목임.

<한-리비아의 교역현황>

(단위 : 천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출	135,912	447,125	364,710
수 입	3,959	10,256	2,775
무역수지	131,953	436,869	361,935

자료 : KITA

□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리비아 투자는 유전개발, 대수로 사업 수행을 위한 ANC 합작법인 설립, 대우자동차 합작공장 설립, 대우건설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유전개발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에서 NC-174 유전광구 개발을 위해 투자한 사업으로 약 7억배럴의 유전을 발견,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되고 있음.
- 대수로 사업 수행을 위한 ANC 합작법인 설립은 리비아 정부의 대수로 공사 자국기업 발주 원칙에 따라 발주처인 대수로청과 동아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75%, 25%씩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대수로 공사 3단계를 수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대우자동차 합작생산 공장은 1999년에 설립되어 2000년 초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2002년 리비아 정부의 환율 보조금 폐지 및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하(약 50%)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 (주)대우건설 합작법인은 2003년 7월 리비아 알가르다비아사와 49:51의 비율로 합작하여 Gulf Construction Co.를 설립, 운영 중이며, 주로 서트 지역의 건설 및 토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기업의 對리비아 투자진출 현황>

업체명	투자금액	투자내용	년도	비 고
석유공사 콘소시엄	US\$80백만	NC-174광구 개발	1990	
동아콘소시엄	US\$6백만	ANC 설립 자본금	1993	총자본금US\$24백만
SK	US\$2.8백만	NC-184광구 개발	1996	
대우자동차	US\$4.5백만	합작공장설립	2000	총자본금US\$15백만
(주)대우건설	US\$20백만	합작건설회사	2003	걸프건설(49%지분)
(주)대우건설	US\$100백만	호텔건립	2006	추진 중

자료 : 무역관 자체 조사

7. 케냐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권 부패

가. 경제현황

□ 경제성장을 및 전망

- 2005년 5.2%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2006년은 예상치 않은 혹심한 가뭄의 타격으로 5%정도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2007년에 별 이변이 없는 한 5.5%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키바키 대통령이 2건의 대규모 정부입찰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세계은행에서는 동 사건의 원천적 처리와 해결을 요구하면서 2004년 이후 약속한 바 있던 2.6억불의 원조금을 동결하여 정부예산 운영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키바키 정권은 2007년 대통령 총선의 국민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 등의 기본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발전 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대신 세금 징수를 강화함.
-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는 증가추세이나 중·소기업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 현 경제 지표들은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키바키 정권의 부패척결과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전략 이행여부가 2006년 케냐 경제 발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산업별 경제구조

- 분야별 GDP 구성 : 농업이 가장 큰 산업임.

산 업	2003년(%)	2004년(%)	2005년(%)
농 업	23.94	24.20	24.20
제조업	12.99	9.90	10.50
무역, 호텔, 요식업	12.66	11.20	12.20
운수, 저장, 통신	6.31	10.30	10.90
정부서비스	14.53	14.80	14.40
건축업	2.36	3.60	4.00
기 타	27.21	23.2	22.80

자료 : Kenya Monthly Economic Review, 2006년 5월호

- 분야별 성장률 : 특히 무역, 호텔, 요식업이 경기호조세임.

산 업	2003년	2004년	2005년
농 업	2.6	1.6	6.7
제조업	6.0	4.5	5.0
무역, 호텔, 요식업	-19.4	47.3	19.8
운수, 통신	3.6	6.7	8.3
정부서비스	4.2	1.7	0.3
건축업	1.0	4.0	7.2
금융서비스	1.5	1.4	8.1

자료 : Economic Survey 2006년

□ 교역동향

- 2005년도 케냐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6.3%가 증가함.

<케냐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무역량	증가율	무역량	증가율	무역량	증가율
수출(FOB)	2,406	8.1%	2,777	15.4%	3,374	21.5%
수입(CIF)	3,702	9.37%	4,714	27.3%	5,952	26.3%
수지	-1,296		-1,937		-2,578	

자료 :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06'

- 원예, 차, 철강, 커피, 소다회가 총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천연석유, 석유제품, 산업기계, 자동차 등이 총수입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음.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원예	356	480	498	616
차	432	412	454	584
커피	82	82	87	134
소다회	26	31	68	53
철강	52	53	95	122
어류	52	53	52	64
플라스틱	30	34	39	60

자료 :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06'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불)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원유	301	335	580	712
정제유제품	277	520	543	637
기계류	320	431	549	664
철강	140	165	268	294
차량	181	236	307	349
의약품	109	128	146	173

자료 :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06'

나. 한-케냐 교역 및 투자동향

<한-케냐 교역현황>

(단위 : 만불,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3	193,82	19.3	178,83	17.6	14,99
2004	253,84	31.0	224,46	25.5	29,38
2005	284,42	12.0	261,24	16.4	23,18

자료 : 무역협회 KOTIS

<2004~2005 한국기업 투자실적>

년도	회사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유형
2004	Sun-City Construction	알미늄 조립공장	19만불	단독
	K. P. Suppliers Co. Ltd	산업자재 제조수출	15만불	단독
	Hwan Sung Industries (K) Ltd	주방용가구 제조 판매	312만불	단독
	Emstone Enterprises Ltd	식료품 가공제조	34만불	합작
2005	Eagle vet Kenya Ltd	동물의약품 제조	17만불	합작

자료 : 케냐 투자청

III. 국별 진출유망 분야 및 진출 확대방안

1. 남아공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프로젝트

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요 및 주요 프로젝트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요

- 개최시기 : 2010년 6월 5일 개막예정
 - 독일의 전례에 비추어 2010년 6월 5일 18:00에 남아공 월드컵이 개막될 것으로 전망됨. (최종 일정은 월드컵 개막 24~30개월 전에 확정)
- 개최장소 : 9개 도시 (올해 3월 최종 개최도시 확정)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는 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아 등 9개 도시이며, 사용될 경기장은 10개임.
 - FIFA 및 남아공 월드컵 조직위에 따르면, 10개 경기장 중 5개는 신축되고 나머지 5개는 기존 경기장을 보수하여 사용될 예정임.

<남아공 월드컵 개최도시 및 경기장>

개최도시	경기장	수용인원(명)	향후계획
Cape Town	Greenpoint Stadium	70,000	신축
Durban	King Senzangakhona Stadium	80,000	신축
Johannesburg	Soccer City Stadium	94,700	보수
	Ellis Park Stadium	60,000	보수
Bloemfontein	Free State Stadium	40,000	보수
Nelspruit	Mbombela Stadium	40,000	신축
Polokwane	Peter Mokaba Stadium	-	신축
Port Elizabeth	Nelson Mandela Bay Stadium	-	신축
Pretoria	Loftus Versfeld	50,000	보수
Rustenburg	Royal Bafokeng Stadium	40,000	보수

□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 60~70억불

- 美 컨설팅 기관인 Grant Thornton社는 2010년 월드컵이 남아공 경제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70억불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직접적인 GDP 증가분 : 36억불
- 경기장 건설, 인프라 구축 등 직접 지출 : 22억불
- 입장권 수입, 세수 등 정부 수입 증대 : 12억불

- 세계 4대 회계법인인 KPMG社는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60억불로 전망함.

- 부문별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건설, 통신, 관광 산업이 최대 수혜산업으로 평가됨.

- 건설업의 경우, 경기장 건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거대 프로젝트들이 계획되고 있어 최대의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 통신 분야 또한 방송시스템 구축, 통신망 확충 등 수요가 많아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 관광산업의 경우, 월드컵 기간동안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남아공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월드컵 특수를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월드컵 특수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16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실업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또한 직접적 경제적 효과 외에 간접적 경제효과도 막대함.
 - 남아공 국가 및 기업 이미지 제고, 각종 국제경기 개최여건 제공, 남아공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증가 등

□ 월드컵 개최관련 주요 프로젝트

- 남아공은 교통, 도로, 통신, 전력 등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 현재까지 발주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요하네스버그-프레토리아-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총80km)을 연결하는 33억불 규모의 도심고속철도(GauTrain) 건설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는 남아공 정부입찰 역사상 최대규모인데, 캐나다 및 남아공 기업들로 구성된 Bombela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됨.

- 우리기업은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통신 시스템, 열차 내 TV 모니터 및 초고속 인터넷, 열차-역사-경찰서를 연결하는 각종 보안장비 등의 공급자로 참가 유망함.
- 이 외에 도로, 교통, 통신, 전력설비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지난 해 2월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월드컵 개최를 위해 도로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6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남아공 국영전력기업인 ESKOM은 2010년 월드컵을 대비, 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 향후 5년간 150~200억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원활한 월드컵 방문객 수송을 위해 요하네스버그 국제 공항 개보수에 약 18억불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발주된 주요 프로젝트

① Gautrain Rapid Rail Link Project

- 목적 : 월드컵 대비 교통인프라 확충
 - 주요 내용 : 요하네스버그-프레토리아-요하네스버그 국제 공항을 잇는 80km 도심 고속철도
 - 발주처 : 남아공 Gauteng Province
 - 건설기간 : 2006년 하반기 ~ 월드컵 개최 전(예상)
 - 발주금액 : 27~33억불
 - 수주기업 : Bombela 컨소시엄
- ※ 현재 우리기업이 supplier로 참가하기에 가장 유력한 프로젝트로서 동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송부

② 발전설비 확충 Project

- 목적 : 월드컵 대비 전력인프라 확충
- 주요 내용 :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 확충
- 발주처 : Eskom(남아공 국영 전력회사)
- 건설기간 : 2005~2009년
- 발주금액 : 150억불

③ Intelligent Transport System(ITS) Project

- 목적 : 월드컵 대비 교통 인프라 확충
- 주요 내용 : 지능형 교통통제 시스템 도입
- 발 주 처 : 남아공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 발주금액 : 5억불
- 참고사항 : 현재 프로젝트 발주를 위한 예산확보 단계

④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Project

- 목적 : 월드컵 관련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 디지털 방송 솔루션 제공 등 총 96개 분야
- 발 주 처 : 남아공 국영방송국(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
- 발주금액 : 2억불
- 참고사항 : 총 96개 사업 분야 중 약 50%는 IT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여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충분함.

⑤ 공항 IT 시스템 확충 프로젝트

- 목적 : 월드컵 방문객 대비 공항 시스템 업그레이드
- 주요 내용 : 남아공 내 주요 공항의 IT 인프라 확충
- 발주처 : 남아공 공항공사(Airports Compnay Airport)
- 발주금액 : 25백만불

⑥ 기타 월드컵 관련 주요 IT 프로젝트

- 경찰, 보안 및 응급요원을 위한 Voice Communication 설치
- 모든 경기장에 광케이블을 연결해 고화질 이미지 송출

나.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남아공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차별된 시장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GDP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임.
-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아, 사회시스템 및 상관행 등이 유럽과 유사하므로 아프리카 시장이 아닌 유럽시장으로 분류해야 함.
-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물류유통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 중심지로서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거점국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남아공 입찰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 남아공의 『흑인기업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BEE)』에 따라 非BEE 기업의 정부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남아공 입찰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BEE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요소임.
- Prime-Contractor뿐만 아니라 Sub-contractor도 대부분 BEE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 선정되고 있음.
- 입찰참가 희망기업뿐만 아니라, 입찰기업에 대한 물품공급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반드시 BEE 기업을 통해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IT, 통신, 전력 분야 프로젝트 Sub-Contractor 참여

- 남아공은 BEE라는 특수한 흑인기업 육성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이 Prime-Contractor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IT, 통신, 전력 등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아공 현지기업과의 합작 또는 하청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도 남아공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남아공 업체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은 경기장 내 IT 및 통신시설 부문에 하청으로 참여가 가능함.

2. 알제리 : 석유·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가. 시장동향

□ 석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설비 플랜트 프로젝트 대거 발주

- 알제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5-2009)에 약 600억불의 재원을 투입해 인프라 건설 등에 나서고 있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발주되고 있음.
- 이외 석유·가스 생산량 증대 프로그램 추진으로 관련 설비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 알제리는 석유 및 가스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upstream 투자는 물론이고 산업다변화를 위한 석유화학분야 및 다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플랜트 사업에서 유발된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소나트락사는 2006-2010년 기간 중 총 320억불의 자체 투자계획을 추진 중임.
-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석유 및 가스분야 광구개발 프로젝트로 유전개발 플랜트, 해양 석유가스 저장소 플랜트, 가스전 개발 플랜트 등이 있음.
- 이외 담수화 플랜트, 고압 가스관 매설 플랜트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도 발주가 예상 됨.

□ 국영석유기업(SONATRACH)의 독점적 지위 약화로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 전망

- 新석유법이 발효됨에 따라 소나트락(SONATRACH)의 입찰 독점과 석유가스부문 규제 등이 완화되고 있음.
- 소나트락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율이 종전 50%에서 20~30%로 크게 낮아져 석유·가스의 정유, 운송, 분배 등의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 따라서, 신규 석유, 가스 관련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에 미국, 사우디 등의 외국기업이 석유 가스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주요 EPC 업체와 전략적 제휴 통한 동반진출 모색

- 우리 기업은 알제리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에서 수주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전까지는 EPC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이 바람직함.
- 현지에 진출한 EPC 업체는 현장 수행경험과 현지 업체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알제리 입찰법에 따라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며, 주요 발주기관에서는 EPC 업체와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지 EPC 업체와의 제휴가 필수적임.

□ 주요 발주기관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시공능력 이해도 제고

- 우리 플랜트 업체는 알제리에서 대형 프로젝트 시공경험이 없으므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기관 방문과 주요 프로젝트 발주책임자를 방한 초청하여 우리기업의 플랜트 시공능력 등을 보여주는 등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맥구축이 필요함.

□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알제리 석유·가스 관련 플랜트 등 대다수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원은 발주처 자체자금이며 입찰방식은 Technical Offer 평가 후 통과 업체에 한해 Commercial Proposal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프로젝트 입찰 참가 전 현장을 실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장 캠프 및 제반시설 등을 점검하고 기자재와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면세제도 사전확인, 공기와 공사 대금지불조건, 하자 보수기간 등과 같은 시공자 귀책문제, 선수금과 중도금 지불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입찰 시 고려사항으로는 알제리의 입찰서류, 계약서 등 모든 공식서류가 불어로 작성되므로 불어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발주처인 소나트락, Sonelgaz, AEC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발주기관의 프로젝트 및 물품에 따라 상이한데, 기술사양은 입찰서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여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발주기관이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업의 국제적 신인도, 재무건전성,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유사 프로젝트 시공경험 등이 중시되고 있음.
- 알제리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외국 기업이나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리스크 요인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 사례 : 최근 국내 D중공업이 알제리 전력공사가 발주한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한 캐나다 및 미국기업 컨소시엄에 하청업체로 참가해 Heat Recovery Stream Generator 3대를 공급

3. 나이지리아 : 식품가공 플랜트

가. 시장동향

□ 나이지리아 내 가공식품 수요 증대

-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개발 및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일부 식품, 기초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특히 날개 포장된 과일 주스, 두유식품, 미네랄워터 등의 시장규모가 크며 매년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미네랄워터의 수요증가는 적도성 기후, 열악한 상수도 시설로 인한 식수용 물부족이 주 원인임.
 - 한편 포장된 완제품 과일주스의 수입금지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과일(렌지,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구아버, 레몬)을 이용한 음료생산 플랜트 시장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임.
 - 두유의 경우, 태국산 VITAMILK가 5년 전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4년 말 이래로 태국산 LACTO SOY와 한국산 MAEIL 두유가 나이지리아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두유제조 플랜트 생산설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관련 나이지리아 제조업자들은 외국으로부터 주스원액을 수입,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및 테트라 팩에 수작업으로 희석한 원액을 담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주 정부들은 지역 내 풍부한 과일들을 이용한 정제공장들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바, Benue 주 Makurdi, Katsina 및 Otukpo가 예임.
- 음용수의 정제 및 병입 플랜트 시설 역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재 COCA COLA(Eva Water), UAC(Swan), DANA (Aquadana), WSWNL(Goosy) 등 기존의 회사들을 포함, 나이지리아 내 대략 5천여 개 업체들이 미네랄워터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설이 극히 원시적인 수준임.

□ 시장구조 및 유통경로

- 기계 플랜트 마케팅은 통상 현지 투자가나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투자가는 장비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직접 접촉, 생산 할 품목의 상세사양을 제시함.
- 제조업자(수출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Pro-forma Invoice 제시 및 거래가 성립되면 설치, 시운전, 종업원 교육 등을 공급자가 완료하고 계약 시 지불조건에 의거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후관리

- 애프터서비스는 나이지리아 기계 플랜트 시장 진출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로서, 공급자나 현지 에이전트의 지원과 기술적 공급이 용이해야 하며 기계 설치를 끝낸 이후에도 공급자는 통상 1년간 예비 부품 공급을 포함, 6개월에서 1년 동안 품질관리 개런티를 제공해야 함.

□ 경쟁현황

- 유럽이나 미국업체들이 나이지리아 식품 및 음료 생산 기계 시장을 선점하여 왔으나 가격문제로 최근에는 홍콩, 대만, 중국, 인도산 식품 가공 기계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제품들은 포장, Wrapping, Filling, Capping Machine을 저렴하고 쉽게 관리 및 유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지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 한국산 식품제조 플랜트/기계는 품질의 우수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때문에 진출에 애로가 있으므로 현지시장에 적합한 가격/ 품질 정책이 시장 진입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나.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적극적인 현지 홍보

- 식품가공 기계/플랜트는 현지 입장에서 매우 고부가가치의 기술제품으로서 바이어들에게 제품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홍보가 매우 중요함.

-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복잡한 기술적 사양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거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기계플랜트 전시회에 참가한 바이어들도 관심 있는 기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충분한 영어구사 가능 엔지니어를 통한 기술적 프레젠테이션 및 홍보, 현지 매체를 통한 과감한 광고전략 추진 등 현지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 제품들과의 제품 차별화 전략수립 또한 현지진출 시장 확대의 중요 고려사항임.

4. 이집트 : 섬유기계

가. 시장동향

□ 이집트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

- 이집트 섬유산업은 식품가공 산업에 이어 생산량이 많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2005년말 기준 이집트 섬유산업의 연간 총 생산량은 231억 이집트 파운드(37.1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총 수출액의 23%, 전체 공업생산의 16.3%, 총 고용인구의 1/3을 점유함.
- 이집트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여 종래의 면방직 위주의 섬유산업을 화학섬유 영역으로 다양화 하였고 생산제품도 원단 위주에서 섬유사, 의류, 부자재 등으로 확장함.
- 그러나 이집트 섬유산업의 근간이 되는 섬유기계는 일부 기업이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는 있으나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집트의 연간 섬유기계 수입액은 약 84백만불 규모이며, 도입기종도 직기에서부터 연사기, 편직기, 방적기, 재봉기 등 매우 다양함.

<2005년도 섬유기계류 국별 수입실적>

① HS코드 8447.20.0010

국 가	금액(US\$)	비 중
중국	832,602	37.0%
일본	323,078	14.4%
기타 유럽	294,897	13.1%
스위스	233,509	10.4%
이태리	171,431	7.6%
미국	160,862	7.2%
벨기에	136,623	6.1%
독일	71,938	3.2%
타이완	22,638	1.0%
터키	1,653	0.1%
이라크	402	0.0%
합계	2,249,633	100.0%

② HS코드 8447.20.0020

국 가	금액(US\$)	비중
중국	175,283	54.1%
이태리	43,610	13.5%
일본	36,530	11.3%
기타 유럽	34,510	10.7%
한국	20,126	6.2%
터키	12,956	4.0%
인도	1,003	0.3%
합계	324,018	100.0%

③ HS코드 8447.20.0030

국 가	금액(US\$)	비 중
중국	317,161	59.1%
이태리	109,977	20.5%
독일	59,516	11.1%
일본	38,719	7.2%
기타 유럽	10,848	2.0%
합계	536,221	100.0%

자료 : 이집트 통계청

나.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한국산 섬유기계 수입현황

-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섬유기계 수출은 1992년에 180만 불을 시작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부터는 매년 1천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여 對이집트 수출주종품목으로 자리 매김.
- 국산 섬유기계 수출의 급증은 1995년 이집트에 설립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Ns사의 현지 생산공장이 설립된 이후임.
- 동사를 통해 한국산 기계의 우수성과 성능이 이집트 섬유업체에 확산되면서, 수입상들이 유럽산에 비해 성능대비 저가격의 한국산 기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對이집트 수출 섬유기계의 주요 기종은 직기, 편직기, 방적기, 연사기, 방사기, 재봉기 및 기타 기기 등이며, 직기와 편직기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이집트는 연간 22백만불의 직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임.

<주요 이집트 섬유업체의 국산기계 보유현황>

기업명	기계종류	구매대수	기업명	기계종류	구매대수
N. Maidas	제 직, 염색기	640	Ulhwa	제 직, 편 직기	80
Rose Tex	제 직, 염색기	350	Mahalla	제 직, 편 직기	60
Baramtuchi	제 직기	40	Morshedic	제 직, 편 직기	70
Star Tex	제 직, 가공기	120	Printex	제 직기	60
Salemco	제 직기	60	Abuaali	제 직기	20
MisriSpin	제 직, 방적기	50	S.A. Marua	제 직기	120
Al Masria	제 직, 염색기	270	Mustafa	제 직기	60

자료원 : 이집트 진출 한국섬유업체

□ 한국산 섬유기계의 경쟁력

- 이집트 바이어들이 꼽는 우리나라 섬유기계의 최대장점은 월등한 가격 경쟁력임.
- 우리나라 섬유기계의 가격은 유럽산의 50%, 일본산의 6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반면 품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직기의 경우, 유럽 각국이 Air Jet 기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Water Jet 기종을 생산하고 있어 유럽제품들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편직기 분야에서도 유럽 및 일본산과 50% 이상의 가격차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섬유기계는 기계의 설치와 A/S 비용이 저렴하고 기계운영 인건비가 경쟁국에 비해 낮아 영세한 이집트 섬유업체들에게 매우 환영받고 있음.
- 약점으로는 판매기종이 직기와 편직기에 치중되어 있어 품목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코팅기나 자수기 날염, 염색기 등의 가공기계 분야도 수출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시급함.
- 또한 내구성이 다소 부족하여 A/S 부품 조달상의 어려움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수출업체들이 중고 섬유기계의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인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수출확대 방안

-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
 - 최근 유로화 강세로 유럽산 섬유기계의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여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홍보 부족과 소극적인 마케팅에 기인함.
 - 유력한 현지 수입상을 에이전트로 활용하여 잠재적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판매 마케팅이 필요함.
- 현지 시장에 맞는 품목과 사양을 개발

- 이집트에서 필요한 기계는 사양이 단순한 수동이나 반자동식이면서도 조작성 쉽고 내구성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제품임.
- 원활한 A/S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 현재 약 30여개의 이집트 업체가 국산 섬유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기술인력으로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만도 상당수이므로 기계류 수출시 관건이 되는 제품 보증과 A/S를 위하여 현지 진출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적극 참가
 - 이집트 정부는 EU의 원조를 받아 2008년까지 대대적인 섬유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발주되는 각종 섬유기계 입찰 구매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함.

5. 모로코 : 조선, 선박 및 선박 기자재

가. 시장동향

□ 어선 노후화, 자체 조선능력 부족으로 선박 수요 다대

- 수산업 현대화 전략 부재 → 전문 컨설팅 필요
- 어선 노후화 (평균 20년) → 어선 교체시기 임박
- 어업 장비 낙후 → 장비 현대화 필요
- 자체 조선능력 부족 → 자체 선박건조, 수리 능력 필요
- EU의 폐선 불법해체 감시 강화 → 폐선처리시설 필요

□ 수산업 현황

- 영해면적 : 110만 Km²로서 대단히 넓은 면적을 확보
 - 해안의 길이 : 3,500 Km로서 근해어업 발달
- 항구수 : 26개 항
- 연간어획량('04년) : 908천톤 (잠재어획량 : 1,500천톤)
 - 세계 25위의 어업국 (세계 어획량의 1.2%)
 - 주요 어종 : 정어리, 문어, 오징어

- 어업종사자 : 45만명 (선원 15.2만명)

<모로코 어획량 추이>

(단위 : 백만불, 천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어업수익	772	766	667	521	497
어획량	914	1,105	960	917	908

※ 2001년 EU 어선의 모로코 영해 내 대거 진출이후
어획량 감소

□ 모로코 수산업 현대화 계획

- 어업을 모로코의 주요 산업으로 양성
 - 2013년까지 어업을 모로코 주요 산업으로 정착
 - 2013년까지 3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해외 우수 조선기술 이전을 통한 모로코 조선기술 및 조선 인력 확보
 - 자체 선박건조 능력 확보를 통한 스페인, 모리타니아, 세네갈 등 인근국에 대한 선박 수출
 - 조선기술 향상을 통해 모로코를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박수리 주요 거점으로 성장
 - 선박의 국제 규격화, 국제 표준화 추진
- 선박 및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어획량 증가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촌 소득 확대
- 부분적으로 EU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조업 능력을 100%
자체 조업능력으로 전환

○ 환경친화적인 폐선처리시설 확보

- EU의 환경감시 대상에서 탈피
- 폐선처리시설이 없는 주변국의 폐선 처리 지원
- 폐철 수출 확대

□ 모로코 정부의 지원정책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85백만달러 ('05-'09)
- 자금지원방법 : 관련 업체에 대한 자금 장기저리 융자

○ 지원내용

- 모로코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외국업체와의 컨설팅을 통한
정책 입안
- 노후어선 교체 및 선박기자재 현대화 지원(자금융자)
- 조선소 시설 현대화 및 항구시설 개선
- Agadir, Tan Tan 등 남부항구의 주요 어업 기지화
- 전국적으로 9개의 수산물 거점망 구축

□ 노후선박 현대화 계획

○ 선박보유현황

- 근해어선 2,508척
- 원양어선 446척
- 소형어선 11,500척

○ 선박 신규 건조

- 현재 조업이 불가능한 선박 625척을 신규 건조(4년간)
- 모로코 영해 및 어종에 적절한 타입의 선박 선택
- 외국으로부터 우수 조선기술 전수 및 자체 조선인력 양성

○ 선박 현대화

- 2,000여척에 대한 시설 현대화(진교체, Navigator 및 Radar 설치, 냉동시설 등)
- 모로코 어장에 적합한 선박으로 교체

□ 관련시설 현대화

○ 조선 시설 개선 및 확장

- 기존 조선시설 개선 : Agadir, Tan Tan 항구내 조선소
- 부두항만시설 개선 : 하역장비, 부두냉동시설 등

○ 폐선 처리시설 확보

- 현재의 재래식 반환경적 방식 탈피
- 연근해 및 인근국 침몰 폐선의 처리

○ 조선 및 선박 기술인력 확보

- 자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 외국업체로부터 주요 조선기술 전수

□ 진출 확대방안

- 경쟁국대비 경쟁우위 확보
 - 한국의 우수 조선기술 홍보 강화(모로코 수산업 및 관련업체 대상)
- 모로코 선박 현대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
 - 2005년 선박 현대화 원년을 맞이하여 한국 업체의 신속한 모로코 방문 및 업체 면담
- 양국 정부간 수산업 현대화 협력관계 구축
 - 2006.5월 한-모 경제공동위에서 수산업 협력사업 협의
 - 한-모 수산업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고위인사간 MOU체결 추진
- 경쟁국 진출현황 파악
 - 주요 경쟁국 :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중국
- 모로코 수산업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 관련자료 수집을 통한 모로코 선박, 기자재, 인력 및 조선소 현황 파악

○ 모로코 정부의 對업계 지원정책 이해

- 모로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이해
- 정부의 대업계 지원내역 이해 (자금지원, 정보제공, 기술도입 등)

○ 모로코 정부에 대한 수산업 발전전략 컨설팅

- 한국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한 전문 컨설팅
- 컨설팅과 연계한 국내 기술 및 인력의 투입
- 모로코 내에 친한국 수산업 인력 확보
- 국내 선박 및 기자재의 지속 수출 발판 마련

6. 리비아 : 건설 중장비

가. 시장동향

□ 시장규모

- 트리폴리 시내에는 기존 주택, 호텔, 오피스텔 빌딩 등의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 및 신규건축이 한창이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음.
- 리비아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도로 등 공공시설에 관한 신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찰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주요 건설 프로젝트 : 주택건설(2006~2010년 기간 중 30만 채 건설), 항만 보수, 철도 건설, 호텔 건설, 공항 확장, 담수화 설비 및 하수도 처리 건설 등
- 건설경기 부활로 건설 중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70~80년대 리비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해 수입되었던 건설 중장비들이 노후화되고 정부 독점이었던 건설장비 수입권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건설 중장비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현재 리비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굴삭기와 굴착기 브랜드는 CAT이나 대부분 20~30년 전 수입된 낡은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탈리아의 Fiat Kobleco 장비가 대량 수입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건설용 덤프트럭은 Iveco, Benz, Volvo, MAN 등이 유명하며 도로건설 장비분야는 CIFA, Butzmeister, Bitelli이 우세
- 국산 건설 중장비의 경우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건설 회사들이 대수로 공사와 같은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음.
- 또한 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설장비 수입상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건설 중장비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국산 건설 중장비 수입 시 단점은 먼 거리로 인한 A/S에 대한 부담이므로 우리 기업이 리비아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리비아 건설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감안할 때 국산 중장비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리비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설장비 수입액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건설붐을 감안했을 때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리비아 건설중장비 국별 수입현황>

국 가	2003년		2004년	
	금액(US\$)	점유율(%)	금액(US\$)	점유율(%)
E.U	10,911,594	21.5	10,473,081	27.8
Italy	7,673,060	15.1	8,840,271	23.5
China	5,052,719	10	4,841,762	12.9
Japan	1,360,924	2.7	3,889,637	10.3
Germany	4,001,691	7.9	1,775,653	4.7
U.K.	4,613,372	9.1	1,051,425	2.8
S. Korea	46,481	0.1	595,528	1.5
Belgium	1,163,339	2.3	577,659	1.5
Egypt	225,280	0.4	386,889	1
UAE	121,457	0.2	10,787	0.3
Netherlands	813,923	1.6	3,538	0
others	6,373,877	12.6	3,473,407	9.2
합 계	50,698,003	100	37,597,493	100

자료 : 리비아 통계청

□ 경쟁 현황

- 리비아에서 유명한 건설장비 브랜드는 Caterpillar, Fiat Kobelco, John Deere, Komatsu, Hitachi, Terex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중 Caterpillar, Fiat Kobelco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리비아의 건설 장비는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과거 리비아 정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유럽 건설 회사를 통해 대량 보급되었기 때문이며, 현재도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리비아의 건설 업체와 수입업체들이 유럽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건설장비의 수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면서 구매기준 또한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국산 장비의 수입을 희망하는 수입상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유통경로

- 과거에는 대부분의 건설 장비가 각 지방 정부 산하의 국영 건설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자체 활용하거나 민간 건설업체에 판매하였음.
- 그러나 최근 리비아 정부의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 추진 및 국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민간 수입상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6. 4월 리비아 건설 중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역 에이전트로서 공공기관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기업에 제한 수입을 한정하였음.
- 건설 장비의 민간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입상들은 외국 유명 메이커의 판매권을 가지고 메이커로부터 직접 수입해 대형 Showroom에 상시 전시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해주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인 판매망은 없음.

□ 수입제한

- 리비아 정부는 2005.8.1일부로 시행된 Decree No. 114/2005에 의해 담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 및 4%의 통관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 중장비의 경우 2006.4월부터 시행된 에이전트 법에 의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가능하나 민간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40%를 민간에 개방한 주식회사여야 함.

나.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가격 경쟁력 확보

- 리비아 시장을 선점한 유럽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
- 건설 중장비의 경우 운임이 가격경쟁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산의 경우 유럽산의 운임을 상쇄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장진출 확대의 관건임.

□ 유력 에이전트 발굴

- 건설 중장비를 수입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1개 이상의 제조업체나 품목을 대리하는 무역 에이전트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 발굴이 리비아 시장진출 확대의 관건임.

□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수입상에 대한 방한 초청이나 기술자를 리비아 현지에 파견,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임.

7. 케냐 : 기계 플랜트

가. 시장동향

□ 전반적인 시장동향

- 케냐는 동아프리카 공동체(COMESA)의 관세혜택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집트 및 기타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 및 기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제조업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 및 플랜트 설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케냐 정부는 민간 이익단체인 케냐제조인협회(KAM)의 추천을 받은 경우 등록 및 재정지원 처리절차를 수월하게 해주고 있음.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경우 산림자원 및 부족한 석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산업 간접 육성 방법으로 통상산업부 후원 하 '플라스틱 기계 전시회(매년 6월경)'를 개최하고 있음.
- 플라스틱 제품이 연간 1억불 이상 수입되고 있는데, 구매력이 낮은 일반 소비자들도 종이, 석재, 목재 등 고가 생필품보다 저가의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선호하고 있어 시장은 계속 성장 추세임.

- 참고로 케냐의 플라스틱 생활용품 수요는 매년 평균 15%~20%씩 증가하고 있음.
- 포장산업의 경우도 케냐의 외화벌이 효자품목이자 연간 2억 불 상당을 수출하는 장미, 안개꽃 등 화훼작물이 네덜란드 시장에서 열악한 포장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Strapping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CIF 가격에 평균 3%에서 10%의 관세 혜택을 보고 있음.
- 포장기계 시장은 연간 약 500만불 규모로 비교적 적은 시장이지만 다양한 포장 기자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장임.
- 우리나라가 케냐 플랜트 및 건설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는 드물지만, 현재 진행 중인 나이로비 외곽순환도로 건설 프로젝트, 인도양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하려는 해저광케이블 프로젝트, 고질적인 에너지 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형 디젤발전설비 프로젝트와 지력-풍력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 등은 지속적 관심대상이 될 것임.

나. 시장진출 확대방안

□ 노화된 기계설비 교체 시장을 겨냥할 것

- 케냐 내 제조기계 및 플랜트는 1960년대 독립 이전에 설치된 이후 교체된 적이 없어 약 80%이상이 노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노후화 기계 및 플랜트 교체 시장을 겨냥하여 마케팅이 필요함.

□ 인근국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을 통한 진출

- 남부수단, 르완다, DRC 등은 우리기업이 전혀 진출하지 못한 불모지로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많음.
- 모리셔스는 남부아프리카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수위에 위치하면서도 전통적인 인도와의 강한 유대관계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어려웠음.
- 동 시장 개척을 위한 관심 있는 우리업체 유치 및 전시회 사업 전개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하며, 케냐를 중심으로 한 동아프리카 공동체 확대시장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의 유리한 입지 확보 및 실질적인 무역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에너지 대체 자원 개발형 플랜트 프로젝트 진출

- Rift Valley를 중심으로 화산대가 형성되어 있어 분화구 및 지열을 이용한 지력발전개발 가능성이 풍부하여 캐나다 및 유럽에서 지력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케냐정부는 Ngong산 같은 구릉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 중이므로, 이러한 정부사업과 연계할 경우 동 분야 수주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진출 시 유의사항

- 정부차원의 보호장치를 신중하게 고려

- 노동력과 자원은 현지에서 수급하고 자금과 장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나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므로, 정부차원의 보호 장치가 절실함.

- 현지 유력 대리인 발굴이 관건

- 대리인 발굴 시 입찰 응찰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네트워크 및 유통채널이 구축된 업체를 엄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략 5년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생각으로 '인내'와 '장기전(長期戰)'의 자세가 필요함.

- A/S 여부도 구매결정 요인

- 현지에 유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성형기는 노동과 결부된 저가제품이어서 기업체들의 낮은 기술력으로는 잦은 고장이 발생함.
- 이들 기계 수입업체들에게 향후 A/S 제공 여부가 바이어들의 기계 구매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랜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 산업페이퍼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 산업연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